금수강산

5

주체104(2015)

루계 제309호 월간

 ISSN 1727—9062

정말 좋은 세상이야
경쾌하게 (♩=120)
작사 서성진, 작곡 리종오
1. 손 자 며 느 리 삼 태자낳 고 신 문에-났다오
어 서들보소 우 리 마 을- 장 수 집 로 인 동네방네자랑 일
(후렴)
세 로동당 세 상은- 정 말 좋 은 세 상이 야-
사 회 주 의 내 나라는- 정말좋은세상 이 야
2. 옛날 세상엔 고생둥이라
로인들 생각은 깊어가는데
우리 장군님 귀한 선물을
가슴가득 보내셨네
(후렴)
3. 로인내외 감격에 겨워
장군님 우러러 큰절 드리며
삼태자모두 장수로 키워
인민군대 보낸다오
(후렴)

차 례

자기 사는 제도를 사랑하는 인민

조국은 젊음으로 약동하고있다.

그 어느 공장이나 농장벌,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에 서보아도 창조와 혁신의 동음이 울려나오고 열정의 땀방울을 흘리는 근로인민의 모습이 안겨온다.

교정에는 학생들의 향학열이 넘쳐나고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간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조국,

마치도 조국의 래일은 아름다운 꿈을 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 의해 밝아오는듯싶다.

한해에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방직공처녀들과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과 같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군인건설자들, 30여년동안 1만여명의 환자들을 수술하여 밝은 얼굴로 일터에 세워준 녀성의료일군, 수십년간 이름없는 산간도로를 묵묵히 쓸고 백수십정보의 산림을 가꾸는 가정들…

누구라없이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고있다.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바치는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삶을 자부할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이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때문이다.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고있지만 믿고 의지할 자랑스러운 품이 없다면 그 삶은 가련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을것이다.

인민들 누구나가 안겨사는 품, 어머니라는 정다운 이름과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친 선거자들

함께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조국의 품은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는 은혜로운 품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무슨 일이든 인민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는 인민중시의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우리 조국.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보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20성상의 기나긴 나날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종합체계화하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여 수령님께서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인민대중의 지위와 존엄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총대가 강해야 인민을 지킬수 있기에 그이께서는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들과 섬초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선군의 한길을 끝없이 걷고걸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고난의 행군때를 회고하시며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봐야 한다고,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군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희열

나라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불태우신 장군님이시기에 야전식사, 야전리발, 야전솜옷, 쪽잠과 줴기밥과 같은 무수한 일화를 남기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을 웃으며 헤쳐가실수 있었던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은 그이의 더없는 락이였고 보람이였다.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자리잡고있었기에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언제인가 우리 조국을 방문한 인디아의 한 사회학 학자는 이런 말을 남긴적이 있다.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 인류가 수수천년 소원해온 인민숭배의 사회이다.》

조국의 현실에 대한 세계의 광범한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의 한결같은 찬탄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 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과 꼭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해 헌신하시는분,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태양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정에 끌려 운명을 맡기고 그 뜻에 매혹되여 심장을 바치며 인민은 한마음 그이만을 따르는것이다.

누구나 다 배워간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하기에 누구나 자기들의 삶을 자부하는 인민이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그리고 과학자, 교원들이 국가로부터 궁궐같은 새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병이 나면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병을 고치며 돈을 내고 학교에 보낸다는 말을 모르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며 누구나 만복을 누리는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

한두명의 학생을 위해 외진 섬에 학교와 선생님이 있고 한명의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있는 조국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로동자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불의의 정황속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날에날마다 늘어나고있다.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 조국의 곳곳에 일떠선 보금자리들에서 울려퍼지는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도 들려온다.

《원래 살던 집도 좋았는데 이렇게 고급가구를 일식으로 갖춘 더 훌륭한 새집을 받고보니 나라의 고마움에 충정으로 보답해갈 마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하기에 오늘 조국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를 안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일떠세워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

오늘 조국에서서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후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민족사의 번영기를 펼쳐나가는 강성국가건설의 기치는 다름아닌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완벽하게 밝혀져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명시되여있다.

사람을 모든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본질적특성,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회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확립함으로써 그 어떤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조국에서 인민은 그야말로 하늘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오늘 조국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에서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 살림집을 쓰고살 권리가 다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을뿐아니라 낡은 사회제도의 유물인 세금이 완전페지되여 인민들이 세금없는 나라에서 살고있다. 그외에도 생활에서 국가적혜택, 사회적혜택이 많이 돌려져 사람들 자체가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고있는지 다 모르고있다.

조국에서 높이 들고나가고있는 구호도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이며 이러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 최근년간 조국땅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조국인민들이 지녔던 꿈과 리상이 어떻게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며 군대와 인민이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말없이 증명해주고있다.

창전거리가 한창 일떠설 때 이곳을 돌아보던 외국의 한 기자단은 당신들이 래년 봄까지 이 거리를 완성할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매일 한번씩 사진을 찍어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의문이자 조선을 다 모르는 세계의 놀라움이였다.

바로 그 창전거리건설로부터 해가 세번 바뀌는 동안 조국은 거의 2~3일에 한번씩 큰 경사들을 맞으며 현대적인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워 대략 적어만 보아도 50경이나 넘는 새로운 선경들을 일떠세워놓았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오늘 조국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를 빛내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 있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리과대학 교원 정경북

인민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 조선변호사회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 부소장 리원룡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공화국에서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려 하고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민생활이 법적으로 담보될 때 훌륭히 실현될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리원룡: 우리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주권은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실지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서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문강순, 사리원방직공장 정방공 오명춘을 비롯한 평범한 로동자들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이것만 보아도 공화국이 근로하는 인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인민의 제도라는것을 알수 있다.

기자: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은 국가가 인민들의 경제생활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리원룡: 그렇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근로자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 살 문제를 국가가 맡아 해결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제되여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아오고있다. 오늘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현재 국가적인 관심속에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위해 방대한 세포지구축산기지가 건설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기자: 공화국에서는 그밖에 무상치료, 무료교육,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와 같은 인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실시하고있다.

그 시책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심하게 화상을 입은 한 처녀가 8년동안 150여차에 걸치는 수술을 받고 끝끝내 자기의 모습을 되찾은것을 비롯하여 감동적인 일화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리원룡: 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온 나라 학생들이 학비라는 말을 모르고 국가로부터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으며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있는것, 평범한 근로자들이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릉라곱등어관 등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마음껏 문명을 누리고있는것…

이것 역시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공화국법의 한조문, 한조문은 다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자본주의사회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법이 준수되는 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것이다. 공민적인 의리와 량심에 기초한 이 창조적열의에 의해 공화국은 반드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을 일떠세울것이다.

* * *

수 기

다시 찾은 나의 얼굴

요즘 나는 느닷없이 거울앞에 서보군 합니다.

처녀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거울앞에 설 때마다 뿌듯해지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습니다. 또 그러느라면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군 합니다.

(거울속의 저 처녀, 예전처럼 언제나 밝게 웃음짓고있는 저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란 말인가.)

9년전 9월 뜻밖의 사고로 심한 화상을 당하고 본래의 얼굴을 완전히 잃었던 내가 오늘과 같이 옛 모습을 다시 찾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군의 평범한 로동자 처녀가 돈 한푼 내지 않고 150여차의 크고작은 미용수술을 받은 후 본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전설같은 사실을 과연 몇사람이나 믿겠는지…

생각할수록 꿈만 같습니다.

우리 공장 실험실에서 화상을 당하였을 당시 내 나이는 19살이였습니다.

나는 군인민병원에 후송되여 구급치료를 받고 며칠후에야 의식을 차렸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자기 얼굴이 너무도 형체없이 되였다는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얼굴의 아픔을 느끼게 되자 나는 무의식중에 거울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호실에는 거울이 걸려있던 자리만 있었습니다. 실험복주머니에 늘 넣어두던 손거울도 환자복을 입었던지라 있을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나는 바람이라도 쏘이면 얼굴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것 같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창유리에 비낀 나의 모습은 눈, 코, 입이 다 없어진 숯덩어리같았습니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육체적인 아픔보다 정신적인 아픔이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나는 생을 포기하고싶은 마음까지 가지게 되였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이전에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을 한장도 남김없이 쪼박쪼박 찢었습니다. 약도 밥도 전혀 먹지 않는 나를 보며 아버지, 어머니는 딸이 상했을 당시에는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고통스러워하는것을 보기가 더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두눈만 내놓고 얼굴을 가리운채 집안에서 숨어살다싶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공장책임일군의 손에 이끌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과장 림현단선생님앞에 서게 되였습니다.

눈까풀과 입술, 코가 다 타버려 없어지고 볼이며 턱 등이 숯덩어리처럼 되여버린 나의 얼굴아닌 얼굴을 보고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던 림현단선생님은 이윽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본래의 얼굴을 되찾아주겠다는 한마디 말로 나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림송미(왼쪽 첫번째)와 림현단(오른쪽 첫번째)

처음 나는 선생님에게 눈부터 감을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눈주위의 피부가 이그러들어 눈알이 다 드러나고 눈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려 하루에 손수건 3개도 모자랐던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높은 열에 완전히 녹아붙어 숨쉬기 가쁜 코와 국수 한오리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아든 입 그리고 눈을 동시에 수술하여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려는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첫 수술을 성과적으로 마친 후 처음으로 입을 벌리니 이발이 시리여났고 코로 숨을 쉬니 한여름에 감기까지 걸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였습니다.

그후 나는 8년동안 무려 150여차에 걸치는 크고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 2년전 7월 24일이 되새겨집니다.

팽팽해진 얼굴에 주사바늘을 찌르면 바늘은 구부러들어 주사약이 뿜어져나왔습니다. 수술을 하는 선생님도, 수술을 받는 나도 온몸을 땀으로 적시였습니다.

그런속에서 8시간나마 진행된 그날의 수술은 우리 나라 미용외과력사에 없는것은 물론이고 세계미용외과계에서도 리론적으로 가능할것이라고 도서에나 서술되여있던 최첨단수술이였습니다.

며칠후 내가 붕대를 푼다는 소식을 듣고 온 과의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누고싶은 마음을 안고 치료실로 모여왔습니다.

림현단선생님은 나의 얼굴에서 한돌기, 두돌기 하얀 붕대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성공이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일으켜세우며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얼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와 같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최첨단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에서 거의 침식을 하다싶이 한 선생님이였습니다.

30여년 사랑과 정열로 빛나는 림현단선생님의 수술칼에 의해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쌓였던 시름을 깨끗이 가시고 밝고 환한 얼굴로 자기의 정든 일터와 가정, 학교와 조국보위초소에 섰습니다.

돈과 재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나라, 림현단선생님과 같은 고마운 사람들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다시 찾은 나의 고운 얼굴을 거울에 비쳐보며 나는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키워 내세워준 어머니 조선로동당을 따라 참된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렵니다.

평안북도 대관군 림송미

《이북민중이 부럽다》

지난해 12월 평양의 고려동포회관에서는 남조선에 유괴당하였던 공화국의 9명의 학생들과 국내외기자들의 회견이 있었다. 그때 함흥사범대학의 백영원, 영웅혜산제1중학교의 문철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은 남조선의 반공화국《인권》모략가들이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 대해 심히 헐뜯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지 남조선주민들은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을 동경하고있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북에서는 말그대로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지금 이북사회전반에 관통되여있다. 정치와 경제도 민중우선이고 시책과 혜택도 민중위주이다.

서울에 사는 로동자 길명훈은 이북에서는 우리와 같은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민중 누구나가 다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서울 성동구의 한 녀성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궁전이 세워지고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의 녀성들이 비행기에 실려 평양산원으로 후송되는 희한한 현실은 민중중심의 세상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미래문제연구소 실장 리윤아는 이런 글을 썼다.

북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신비의 황홀경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는 이북민중모두가 한목소리로 터치고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식없는 진정의 말이며 행복과 기쁨의 상징어이다. 정녕 이북은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람이며 기쁨의 동산이다.

정치학교수 김형민은 자기 제도를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이북국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대없이 나는 못살아라고 말하고있다고 감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부산의 한 회사원은 이북민중이 부럽다고 하면서 열번, 스무번을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꼭 이북과 같은 락원에서 태여나 살고싶다고 하였으며 로동자 김유성은 남녘겨레의 인생의 봄은 이북에서 오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밖에 전직교수 주영철은 《이남민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이남민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은 민중을 선생으로, 하늘처럼 여기는 이북의 사회주의제도라고 확신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리상사회를 오래동안 꿈꾸어온 이남민중은 통일조국의 그날을 앞당겨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일

김금덕로인의 가정에서

정상일가정에서

인민반장 김혜숙의 가정에서

═ 인민이 주인된 사회 ═══

평범한 생활

주민들의 배구경기

지난 어느 일요일 평양시 대동강구역 릉라2동에서 14인민반과 28인민반사이에 배구경기가 벌어졌다. 중년선수들의 능란한 처넣기와 재치있는 련락, 젊은 선수들의 4번자리에서의 강한 때리기, 그런가하면 자기편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저마끔 자기 남편이며 웃집 아들 등을 고무해주는 녀인들과 로인들, 아이들의 열띤 함성…

당시 그곳을 지나던 우리는 그들의 생활에 마음이 끌리였다.

우리가 만난 28인민반 반장 김혜숙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민반에는 로동자가정도 있고 지식인가정도 있으며 세대주가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의 가정도 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세대들의 생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 가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에게는 어느 한 공장에서 30여년간 열관리공으로 일해오는 남편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인 맏아들, 군사복무를 하는 딸, 소학교 학생인 막내아들이 있다. 현재 네식구가 방이 3칸으로 된 살림집에서 살고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민반에

우리 선수 이겨라!

서는 모든 세대가 이러한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아 살고있으며 대학생자식을 둔 가정이 많다고 한다. 어린 손자를 포함하여 식구가 6명인 1층 3호에는 대학졸업중이 5개나 된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덧 주민들의 생활에로 이어졌다. 모든 가정들에서 세금이란 말을 모르고 자식들을 돈 한푼 내지 않고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부시키고있는것, 거기에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은 그들대로 일터마다에서 로동보호와 정휴양을 받으며 일하고있는것…

이어 그는 인민반의 많은 주민들이 국가의 혜택속에 생활하면서도 국가가 실시하는 그 가지가지의 시책에 대해 다는 모르고있다고 웃으며 말을 하였다.

이것을 긍정해주듯 1회전경기가 끝난때에 우리와 만난 14인민반 2층 4호에서 사는 김금덕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손녀는 4살때 선천성심장기능장애로 김만유병원에서 석달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소. 그동안 그 애는 수술을 받고 좋은 약도 많이 썼는데 나는 아직 그 값을 모르고있소. 그때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여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울 때였지.

나라가 해방되기 전 나의 두 언니는 집안의 고된 살림살이로 병을 만나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앓다가 숨들을 거두었소.

언니들이 이 제도에서 태여났다면…》

말을 채 잇지 못한 김금덕로인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또 하루 례사롭게 흘러가는 주민들의 생활이 새삼스럽게 여겨졌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흥겨운 노래와 민속놀이로 명절의 한때를 즐긴다.

어머니품에 다시 안긴 자식들

얼마전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유괴당하였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리광혁, 류철룡, 장국화, 로정영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 금성제1중학교를 찾았다.

그들은 고급중학반 2학년에서 공부하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 향하였다. 우리를 안내한 교장은 그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빠른 기간에 실력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없이 자란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리운것이 육친의 사랑과 정이여서 교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교육사업을 해나간다고 하였다.

교실에서는 수학수업이 진행되고있었다. 교원의 다심하면서도 세심하고 알기 쉽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교원의 말에 의하면 수학과목실력은 광혁이가 높았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던것이다. 원래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은 그는 암기력이 높았다. 아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걸쳤다면 지금쯤은 콤퓨터수재가 되였을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철룡이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 열성이 높았다. 교장은 교원들이

공화국으로 돌아온 후 진행된 좌담회 ［주체102(2013). 6.］

콤퓨터수업시간

많은 품을 들이는 학생들은 국화와 정영이라고 말하였다. 사실 그들에 대한 교수방법은 광혁과 철룡에게 적용한것에 비하면 보다 쉽게 인식하고 소화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그것도 기초가 약해 처음에는 힘들어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수업후에 그 학생들을 만날수 있었다.

장국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점점 재미납니다. 우리들을 두고 마음쓰고 안타까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는 선생님들이 고맙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소화할 때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배워주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며 색다른 음식이나 보약재가 생기면 자기들에게 안겨주는 선생님들과 동무들에 대하여 정영학생은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화학
실험실에서

우리가 찾아온 바로 오늘이 자기의 생일이라며 광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저녁부터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나를 찾아와 생일을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식당에 가보니 교장선생님이랑 선생님들, 동무들이 또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철룡이랑 국화, 정영이와 나는 푸짐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지만 선생님들은 그에 성차지 않은지 이것도 저것도 먹어보라며 음식그릇을 연방 제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오후에는 릉라인민유원지에 가서 곱등어들의 재주도 보고 전자오락도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호실에서 함께 놀자고 합니다.》

학교진료소에서 정상적인 검진도 받는다.

동무들과 함께 생일을 쇠고있는 리광혁

릉라인민유원지에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재능을 꽃펴주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있었다. 알아본데 의하면 광혁은 화술, 철룡은 미술, 국화는 료리, 정영은 수예를 배우고있는데 열의가 높다고 한다.

《학생들은 앞날의 배우, 미술가, 료리사, 수예가가 되고싶어한다. 나는 그들의 밑거름이 되여 꼭 재능의 꽃을 피워주겠다.》고 지도교원인 지원은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류철룡은 남조선괴뢰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허튼소리를 한다는데 그런 거짓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로정영은 《그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믿으라고 매일 설교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나는 그분들만을 하늘처럼 믿고따르는 참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래일을 축복해주며 학교를 나섰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존경받는 도로관리원

조길녀와 남편 안대건

주체103(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7호 새마을선거구에서는 평천구역 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 조길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였다.

그날밤 그는 잠들지 못하였다.

스스로 도로관리원이 된지도 15년, 그 나날에 그는 무엇을 바라며 일해오지 않았고 더우기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리라고는 생각해본적도 없었다. 다만 자기가 맡은 도로의 위생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고 그것으로 만족하였을뿐이였다.

그는 도로를 관리하며 지나보낸 나날들을 새삼스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가 실지 체험하며 차오르는 마음속격정으로 하여 가슴을 뜨겁게 달군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여전히 국가의 혜택을 변함없이 받고있는것이였다.

그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도로관리원이 될 결심을 한 그였다. 조길녀의 마음속생각을 같은 인민반의 녀성들이 지지해주었고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여 조길녀를 비롯한 가정부인들 20여명으로 구역도시시설관리소에 하나의 작업반이 조직되였다.

면적이 6만여㎡나 되는 도로관리는 쉽지 않았다. 모든것이 손에 설었으며 생소했다. 한가정의 뜨락을 꾸리고 거두는것도 품이 드는데 하물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관리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도로관리원으로 진출한 첫해의 겨울은 참으로 엄혹했다. 50년만에 온 강추위는 매일이다싶이 폭설을 퍼부었고 맵짠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몰아왔다.

하루종일 발목을 넘는 눈을 치며 수십리길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차려준 밥상앞에서 잠에 곯아떨어지군 하였다.

어느해 장마철이였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맡은 구간의 도로를 돌아보던 그는 한 우수망에 물이 넘쳐나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때는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주저없이 우수망으로 뛰여들었다. …

이렇게 보낸 나날들은 그에게 있어서 한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조국과 자신에 대하여 알게 하는데서 귀중한 체험을 쌓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하기에 그는 도로를 한번 청소해도 자기 집 뜨락을 거두듯 알뜰히 쓸었고 걸음길의 블로크 한장을 깔아도 일매지게 깔아놓군 하였다. 도로에 오물이 떨어지거나 락엽이 딩굴어도 제집에 흠이 생긴듯 깨끗이 거두지 않고는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는 일년 사계절 눈보라와 비바람, 뙤약볕속에서 도로를 관리하였다.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그는 도로관리에 필요한 기공구들을 어디서 보장해주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반원들을 발동하여 장만하였다. 어려운 때 공구 한개라도 자기의 힘으로 마련하여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것이 바로 공민된 도리라고 늘 생각하는 그였던것이다. 그와 작업반원들이 창안한 여러 종류의 기공구들은 도로관리를 질적으로 하면서도 일을 손쉽게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도시시설관리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반화되였다.

그의 마음은 도로에만 수놓아져있지 않다. 그는 작업반의 허물많던 한 청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그를 선군시대공로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내세웠으며 이 과정에 작업반을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도로를 관리하는 그의 소행은 주민들속에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하기에 동트는 새벽이나 별뜨는 저녁이나 도로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그를 사람들은 존경하고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선거의 날 대의원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가고 묻는 외국기자의 물음에 조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요술배우인 맏아들의 연기로
조길녀의 가정에 웃음넘친다.

《나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하겠다.》

오늘은 조길녀의 남편 안대건이 도로관리의 길에 안해와 함께 섰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림철명

조선속담(억지)

- 내 노랑병아리만 내라고 한다

무턱대고 무엇이나 우기기를 잘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송아지 친자 가르치듯

잘 듣지 않는것을 억지다짐으로 애써 가르치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 팔 고쳐주니 다리 부러졌다 한다

체면이 없이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들이대는것을 욕으로 이르는 말.

-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잘 안되는 일도 이악하게 달라붙어 힘써 하면 될수 있음을 이르는 말.

- 억지로 절받기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요구하여 억지로 대접을 받음을 비겨이르는 말.

- 울며 겨자먹기

하기 싫기는 하지만 하는수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이발도 나지 않은 어린애에게 콩밥을 먹이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것을 이르는 말.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철창속에서

(전호에서 계속)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련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또한 군벌당국과 싸워 출옥날자를 앞당기리라고 결심하였다.

옥중에서 투쟁을 벌리자니 외부와 련계를 취하는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간수들을 교양하여 우리의 동정자로 만들어야 했다.

간수를 쟁취하려는 나의 의도는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때 감옥당국에서는 감방들을 수리하면서 얼마동안 우리들을 잡범들과 같이 있게 하였다. 감옥당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어느날 나와 한감방에서 생활하던 중국인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부자집을 털다가 잡혀들어온 사람이였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폭하였다.

내가 잡범들의 방에 옮겨간날 《깡툴》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우리더러 돈도 좋고 먹을것도 좋으니 한턱 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다. 자기네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를 지키게 되여있으니 너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호통질을 하였다. 아주 감때사납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였다.

나는 그 죄수에게 며칠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것은 어데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생활을 오래한 당신들이 내는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오금을 박았다.

말문이 막힌 《깡툴》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나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횡을 부리던 죄수이기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감방사람들은 모두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 손정도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간수를 불러 감옥병원에서 약을 가져다달라고 요구하였다.

행동이 거칠고 붙임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시부터 아니꼽게 보아오던 리가성을 가진 이 간수는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살붙이처럼 돌봐주는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우리의 성의있는 간호로 앓던 죄수는 인차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후부터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생기였다.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괴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내앞에서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리간수는 자못 신기하게 생각하며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림감옥의 간수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는 사람이였다. 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은 리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다는것과 그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간수가 된 사람이라고 통보해주었다. 나는 이모저모로 리간수를 료해하던 끝에 그를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례장감을 장만하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리간수가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을 발동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며칠후 리간수가 나를 찾아와 례장감을 장만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감옥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고 물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하자 그는 모를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것을 빼앗겠는가,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적》의 딱지를 붙이는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열을 내여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하기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리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곧이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후부터 리간수는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감방에 무슨 련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선히 들어주었다. 얼마후부터는 그를 통하여 외부와의 련계까지 취할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감옥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와졌다.

그러나 모든 간수들이 다 리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것은 아니였다. 간수들중에는 문구멍으로 감방안을 엿보면서 수인들을 못살게 구는 뱀같은 간수장이 한명 있었다.

길림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모두 세명이였는데 그 간수장에 대한 평이 제일 나빴다. 그가 당번을 서는 시간에는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여주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그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그때 길림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붙잡혀들어온 황수전이라는 중국학생이 이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독서회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중 조선학생은 모두 2명뿐이였고 나머지는 중국학생들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워 적어도 다섯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물었다. 황수전은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의 버릇을 뚝 떼주겠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는 참대저가락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다가 간수장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다. 간수장의 눈에서는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감방안에 갇힌 학생들은 그때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추어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황수전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워 한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학생들은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을러메면서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감옥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싶은것을 다하였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였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나는 감옥생활을 할 때 손정도목사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다.

손정도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였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있었다. 같은 학교(숭실중학교)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키였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손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손정도는 3. 1운동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림시정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다. 한때는 상해에서 김구, 조상섭, 리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로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로공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로병회가 해체되고 림시정부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길림에 와서는 례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

모든 정치는 일정한 정치방식에 의하여 실현되며 그 성과여부는 어떤 정치방식에 의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인덕정치와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의 하나는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인덕정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차넘치는 정치방식으로서 그 바탕에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이 놓여있다.

인덕정치아래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안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도 한다.

조선로동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실시하여오신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조선로동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고히 이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내세워준다. 지난날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단 1%의 좋은점, 량심이 있다면 그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다.

조선로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의 다른 하나는 선군정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시여 일찌기 선군정치를 펼치시였으며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덕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인덕정치와 함께 기본정치방식으로 삼고있다.

인류정치사에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정치방식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선군정치라는 말은 없었다. 선군정치는 조선로동당의 특유한 정치방식으로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정치방식이라는데 다른 정치방식들과 구별되는 그 특성이 있다.

원래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강한 총대를 떠나서 제대로 실현될수 없다. 총대가 약한 탓에 외세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여러 나라들의 실상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때문에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강한 총대를 전제로 하게 되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 인민을 철저히 보위함으로써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군정치의 밑바탕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총대강화, 군력강화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선군정치를 펼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할뿐아니라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위력한 집단은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이 바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인민군대를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결정적력량으로 내세우고있다. 최근시기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8일공장 등을 훌륭히 일떠세워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준 인민군대의 투쟁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덕정치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 인민을 위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를 변함없이 실시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나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공광일

조국광복회와 전민항쟁준비

조국해방, 이 위업의 수행과정을 돌이켜보노라면 조국광복회의 이름이 다시금 새겨진다.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자력독립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총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집결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주체25(1936)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무송현 동강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천도교와 농민, 교원과 로동자대표들도 참가하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자》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작성하신《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국광복회규약》을 발표하시였다.

강령에는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하는것을 비롯하여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과업,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과업, 사회문화적과업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규정되여있었다.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것을 호소한 강령이야말로 전민항쟁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5일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력으로 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25(1936)년 10월 장백현 곰의골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광활한 지역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정치공작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각지와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있는 중국의 동만과 남만, 북만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그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을 적극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인 동시에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될수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수많이 꾸리도록 하시였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사업,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을 국내에 파견하여 적들에 의해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 전민항쟁준비를 위해 각지에 조직된 지구당위원회들이 지역적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내놓으신 전민항쟁호소문인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해방3대로선 등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그 기치밑에 전민항쟁세력은 급속히 장성하였다. 주체31(1942)년에 일제에게 로출된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하여도 180여개나 되였고 조직적력량은 50만명이 넘었다. 일본에서도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곳들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이 뿌리박게 되였다.

이렇게 빈틈없이 갖추어진 전민항쟁력량은 드디여 주체34(1945)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동적인 총공격에 합세하여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일

5. 1절을 경축하여 로동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103(2014). 5. 1.]

그날의 환희를 안고 들끓는 천생산자들

천생산기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그 앙양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을 맞으며 보다 뜨거운 열풍으로 일어번지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인 렴성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공장을 세차례나 찾아오시여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하나의 일념이 끓고있다. 특히 지난해 새 합숙에 입사하고 5. 1절경축 로동자연회에 참가하였던 환희가 되새겨지는 뜻깊은 날이 다가오니 더한층 열의가 높아지고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집단적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운동에서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는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을 찾았다.

만부하의 동음이 세차게 일고있는 직장의 기대마다에서는 질좋은 천들이 생산되고있었다. 현장에서는 오랜 다추다기대운동의 선구자의 한사람인 로력영웅 전옥화가 직포공들에게 작업묘리를 깨우쳐주는가 하면 새 세대 영웅혁신자인 문강순이 혁신의 앞장에서 작업반원들을 이끌고

제품생산에서 책임성을 높여간다.

정방공의 기쁨

인견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염색종합직장에서

아름다운 꽃문양을 완성해간다.

있었다.

직포공 김옥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난해에 새 합숙에 입사하고 5. 1절 경축 로동자연회에도 참가하였던 행복한 합숙생이다. 연회에 참가하여 나는 속으로 다음해 5. 1절까지 3년분계획을 완수하며 기능이 어린 동무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년간계획완수자로 되게 하겠다고 맹세다졌다. 그 결의가 다 실천되였다. 적은 성과이지만 그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적으나마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는 로동자연회가 끝나는 즉시로 기대를 잡은 처녀였고 자기만이 아닌 작업반, 직장안의 뒤떨어진 동무들을 이끌어준 기특한 처녀였다. 하지만 이런 소행은 이 공장에서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가 방적준비직장에 갔을 때였다. 거기에서는 하루계획을 훨씬 넘쳐하기 전에는 일터를 떠나지 않겠다는 기대공들의 헌신적인 소행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벌어지고있었으며 이런 소행역시 평범한것으로 되고있었다.

그에 대해 기대공 우숙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우리 직장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공장적인 천생산량이 결정된다. 마치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보장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석탄이 없으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수 없는것처럼 실꼬치가 없으면 천생산을 못하게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계획수행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 직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새 로동자합숙의 첫 주인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더 큰 혁신을 일으킨다는 합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공장의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청년정방직장 작업반장 심정훈은 작업반명단이 그대로 혁신자명단이 되였다며 이것은 자기 작업반만이 아닌 온 공장이 가지고있는 자랑이라고 말하였다.

그야말로 온 집단이 혁신자로 되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금 공장에는 5년분인민경제계획 완수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4년분, 3년분, 2년분계획 완수자들과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나왔으며 공장은 자기앞에 제시된 천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는 자기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가려는 생산자대중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맥박치는 5. 1절의 환희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라는 일군의 말을 들으며 공장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다채로운 정서생활을 하고있는 공장종업원들

시민들을 위한 버섯생산기지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돋아나는 버섯을 식생활에 많이 리용하여왔다.

자연계에서나 채집할수 있었던 버섯을 오늘날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

조국땅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버섯공장들과 재배장들이 일떠서 버섯생산이 활성화되고있는 속에 얼마전에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버섯공장이 일떠섰다.

평양시버섯공장은 기본생산건물과 궁륭식야외재배호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수준이 높을뿐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공장에는 조종실,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 기술준비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 기질성형장, 야외재배장을 비롯한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산뜻하고 멋있게 꾸려져있다.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이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도 완벽하게 구축되여있다.

조종실에서는 버섯기질성형공정에서의 원료분쇄로부터 이송, 혼합, 기질주입 등과 함께 성형된 기질을 멸균하고 생산된 종균을 무균상태에서 접종할 때 매 방의 온도, 습도, 미립자수, 차압을 실시간감시하면서 자동조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접종된 버섯균을 배양하고 재배하는 배양실과 재배실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 빛 등 버섯이 자랄수 있는 생육조건을 지어주는 버섯재배공정을 자동조종해주고 있다.

접종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버섯생산목표를 높이 세웠다.

그를 위하여 흰곤봉버섯, 느타리버섯, 털검정버섯, 버짐버섯과 같은 좋은 품종들을 기본생산지표로 선정하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공장에서는 버섯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냉이속을 적극 리용하는것과 함께 대용기질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평양시버섯공장에서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버섯재배에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려는 대학교원, 연구사들과 공장로동계급의 노력에 의하여 분쇄기, 혼합기, 멸균기, 자동기질주입기와 같은 많은 설비들이 완성되여 버섯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조업후 생산된 첫물버섯을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어린이들과 시안의 도로관리원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맛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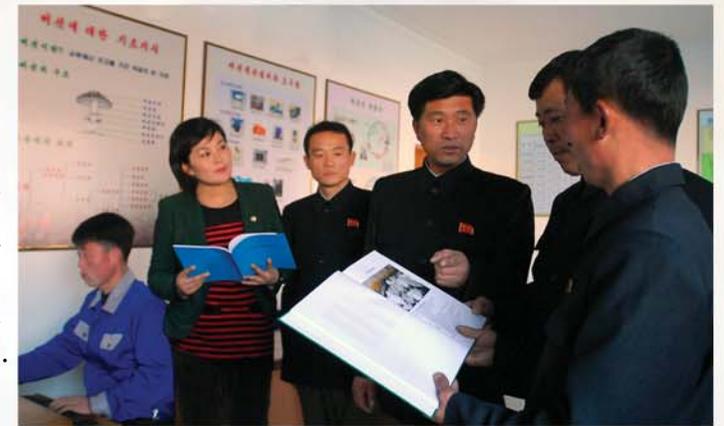
지난 1월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만족해하시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평양시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단식으로 수확되는 많은 버섯은 평양시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더 좋은 버섯품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생산 및 경영활동을 콤퓨터로 조종한다.

여러가지 버섯에 대한 과학적 재배방법을 토론해간다.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생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에서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경제의 자립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길도, 경제부문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길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에 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우리 조국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애국유산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져있다. 그것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킨다면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비결은 과학기술발전에 있다.

조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갔으며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핵심기초기술, 핵기술, 우주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이 자립경제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은 경제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생산을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다.

발전된 과학기술은 나라의 자연부원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부문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이미 마련된 생산설비와 기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 갱신하고 새로운 첨단설비들을 만들어낼수 있으며 선진적인 기술공정을 도입하여 생산을 늘이고 실리도 보장할수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경제를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하고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경제부문의 현대화, 정보화를 우리 식으로 실현하는것이다. 현대화, 정보화를 우리 식으로 한다는것은 그것을 어디까지나 자체의 력량과 기술, 자기의 자재에 의거하여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의 힘과 기술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발동하여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한다는것이다.

지난해 조국에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제품생산, 품질관리, 업무활동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손로동을 없애고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이고 제품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일떠세운것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하기에 오늘 경제부문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자각을 안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문진성

조류학자의 기쁨

모란봉구역 장현동에서 살고있는 박래번(78살)은 요사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으로 날아오는 밤물까마귀와 중백로가 그에게 그토록 바쁜 나날을 보내게 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수백마리의 밤물까마귀와 중백로들이 수목원으로 날아왔다. 지난해에 차지하였던 둥지를 찾아 다시 《집》을 짓느라고 오락가락하는 한마리한마리의 새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리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왔구나.)

그러느라니 그의 마음은 느닷없이 50여년전으로 흘러갔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당시)를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 배치받은것은 주체49(1960)년 12월이였다. 소장과 연구사들이 우리 함께 온 나라의 새들을 모두 찾아내고 늘여나가자며 두손을 뜨겁게 잡아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패쳤다.

(내 생의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그는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우리 나라 산들의 구성과 새들의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 등 너무도 많은 과제가 앞에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그에게는 부담으로 되지 않았다. 언제 날이 밝고 어두워지는지도 몰랐다.

온 나라 산들에 온갖 새가 지저귀고 그 마리수를 늘이려는 마음은 그로 하여금 아무리 험한 산발들을 톺아도 힘든줄 모르게 하였다. 그 걸음이 많아질수록 그의 조류집의 페지수도 두터워졌다. 지금까지 그가 찾아내여 고증한 새들은 46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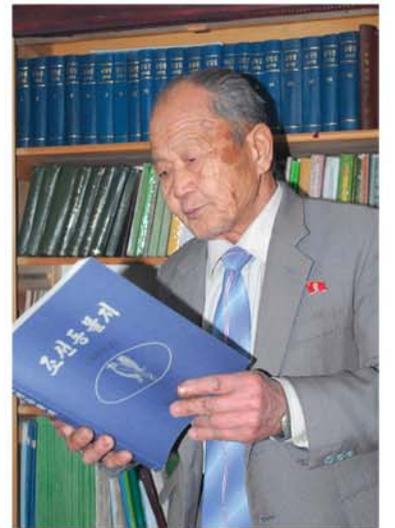
뿐만아니라 그는 《조선의 꿩》, 《조선조류도감》, 《조선조류분류명집》, 《사냥의 묘리》, 《동물의 생태》를 비롯한 많은 책들도 집필하였다. 그에게는 과학기술성과등록증들도 적지 않다.

그 나날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수훈을 받았다.

년로하여 이제는 손자들의 응석이나 받아주며 살아야 할 때이지만 그는 《조선동물지》를 집필하였고 오늘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날아오는 새들에 대한 연구와 그 서식조건에 대하여서도 마음을 쓰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그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 주변에서 처음보는 몇마리의 새들을 보게 되였다. 그것이 바로 밤물까마귀와 중백로였다.

(저 새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러느라니 대성산과 모란봉,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이 하나로 련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였다. 그의 생각은 옳았다. 대성산일대에 펼쳐진 수목원은 그 모든것을 하나로 련결시켜 새로운 생태환경을 낳게 하였고 새로운 동물들이 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동남아시아의 습지대에서 사는 새들이 수목원으로 해마다 날아오는 모습은 박래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박래번

몇년전부터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으로 더 많은 새들이 날아오게 하자면 새들의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먹이사슬이 이어져야 한다는데로부터 그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켰다.

연구끝에 밤물까마귀와 중백로가 기름개구리를 좋아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새들의 특성은 그로 하여금 기름개구리들이 많이 살고있는 적지들을 찾아 여러곳을 다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여러곳의 기름개구리들이 수목원으로 서식지를 옮기게 되였다.

수목원으로 찾아오는 새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온 나라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되여가고 없던 새들도 새로 보금자리를 펴고있는 조국의 모습은 조류학자 박래번에게 나날이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높은 목표, 완강한 실천력

인민봉사부문의 인재들을 양성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 최근시기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 대학의 김남식은 말하였다.

《몇해전부터 대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물질적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특히 자체의 힘으로 대학의 낡은 교사를 헐어버리고 새 교사를 지어야 할뿐아니라 모든 건물의 내외부를 개건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지만 우리는 집단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훌륭히 실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개건사업이 힘들었어도 학생들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을 조금도 중단함이 없이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갔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대적으로 건설 및 개건된 교사들, 실험실과 실습장 등을 돌아보았다. 눈에 확 띄우는것은 대학정면공지에 체육시설을 꾸리고 그 주변에 새 품종의 잔디를 입히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구색이 맞게 심은것이였다. 이것만 보아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가 저절로 쏟아지는듯싶었다.

실지 이 대학의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주목할만 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학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내용의 현대화를 위하여 선진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교수에 제때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급양학부와 봉사학부, 경리학부에서는 교육내용을 혁신하고 새로운 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이 과목들에 대한 교수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교재와 참고서, 강의안들을 집필하여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으며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전공과목강의에서 콤퓨터화의 비중을 높이고 다매체편집물을 모든 강의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연구사업과 결합하여 보다 활발히 진행하였다. 실력을 높이기 위한 실력전의 된바람이 벌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관록있는 교육자, 연구사들과의 경험토론회, 초빙강의가 조직되여 그 과정에 좋은 교수방법과 연구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급양학부 료리실기 2강좌 강좌장 최병각은 말하였다.

《사실 대학을 꾸리는 사업을 하면서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등 많은 일을 하자니 힘은 곱절 들었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대학에 주신 유훈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나날에 나는 우리 식의 고기가공방법을 연구완성하게 되였다.》

성과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흔한 남새를 손쉽게 음료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에서 성공하여 기능성음료의 다양성을 실현한 급양학부 료리기초강좌 교원 리기순을 비롯하여 조선옷의 유구성과 우수성, 계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완성한 피복학부 옷가공강좌 리복희 등 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주체적관점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리학부 상업경영연구실 연구사 교수 박사 리광일의 상업전략과 상품가격정보체계에 대한 연구성과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이 대학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편의봉사과 학생들의 실기

료리실습

봉사학부 학생들의 무용기초훈련

과학으로 담보해간다

호흡기능검사

팔능력 측정

국제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체육선수들은 말한다.

《오늘의 국제경기는 체육과학의 경쟁마당이다. 체육과학을 떠나 경기들에서의 금메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평양의 청춘거리에는 나라의 체육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체육과학연구소가 있다.

주체48(1959)년 2월에 창립된 연구소는 나라의 체육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며 선수들의 체육기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축구경기에 대한 연구분석

력기경기에 대한 연구분석

평균대운동 동작분석

연구소에는 축구연구실, 구기종목연구실, 중경기종목연구실, 체육심리연구실, 체육정보연구실 등 11개의 연구실이 있으며 현대적인 과학측정설비들이 있다.

소장 함승학은 말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체육과학도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최근년간 연구소에서는 체육과학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상징종목인 축구, 마라손을 비롯하여 파악있고 전망성있는 종목들과 승산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미 력기, 유술, 레스링을 비롯한 10여개 종목의 종목별훈련 및 경기조종지원체계를 개발한 연구소에서는 프로그람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연구사들이 종목별훈련장들에 나가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도록 하고있다.

축구연구실의 연구사들은 사업의 성과는 경기에서 나타난다는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프로그람들을 련속 개발하여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감독들의 경기지휘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연구실에서 작성한 음성입력에 의한 실시간 축구경기분석체계와 축구훈련 및 경기지원체계, 인공지능학적방법에 의한 축구교수훈련지원체계 등은 지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에서 1등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구기종목연구실의 장광일연구사는 탁구경기자동분석체계와 탁구교수훈련지원체계를 연구완성하여 훈련과 경기를 과학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과학적인 안받침속에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었다.

중경기종목연구실에서도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아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훈련방법과 기술수법, 전술체계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있다. 그로 하여 놀라운 경기성과들이 이룩되고 선수들의 기록이 부단히 갱신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축구훈련공정의 과학화》, 《마라손훈련방법》, 《선수의 최고몸상태조성》, 《체육훈련공정의 과학화》를 비롯한 100건의 참고도서와 교과서도 집필하여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한 현실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사업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야 화

미륵바위와 백휘걸

평안남도 맹산군에는 미륵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백휘걸이라는 장수의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백휘걸은 일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겠다고 무예를 열심히 익혔다.

그러던 어느날 외적이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다는 급보가 온 나라에 전해졌다.

휘걸은 싸움터에 나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지만 앓고있는 어머니와 구차한 집살림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느날 휘걸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에게 싸움터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아뢰였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억센 손을 잡으며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네가 참 좋은 생각을 했다. 대장부로서 나라가 위험에 처한 이때 사사로운 일에 잡겨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다면 백성의 도리가 아니다. 집안일은 걱정말고 어서 떠나거라. 꼭 공을 세우고 돌아오너라.》

백휘걸은 집을 떠나 미륵바위에 이르자 《내 만약 나라를 위하여 원쑤를 처물리치지 못하면 살아돌아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써놓았다.

그후 휘걸은 뛰여난 무술과 지략으로 하여 싸움터에서 여러번 공을 세워 장수가 되였다.

그런데 그만 휘걸은 외적을 치는 마지막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친우들이 전사한 휘걸의 시신을 그가 타던 말에 올려놓았는데 말이 눈물을 흘리며 휘걸의 집을 향해 줄곧 달려갔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붙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장하다, 내 아들아. 너는 비록 죽었으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야 어찌 죽겠느냐.》

마을사람들은 모두 백휘걸과 어머니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미륵바위를 보며 백장수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해왔다고 한다.

*　　*　　*

이름이 좋아서 흥하는가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회장 김수해동포와 미국 토라스회사 사장 구기본동포는 서흥땅과 자별한 인연을 가지고있다.

고국에 올 때마다 황해북도 서흥군에 살고있는 친척들을 만나보군 한다는 그들을 비롯해서 해외동포들에게 서흥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민족악기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서흥악기공장

서흥군은 평양에서 사리원을 거쳐 개성으로 가는 길의 중간위치에 자리잡고있다.

우리를 안내한 군의 한 일군은 군을 돌아보기에 앞서 적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선군풍경을 자랑하는 범안리와 민족악기인 장고생산으로 소문난 서흥악기공장도 이 고장에 있었으며 수유나무림조성과 수유나무모생산으로 온 나라에 이름이 뜨르르하고 해마다 가을철이면 산에 들에 꿩과 노루를 많이 놓아주어 기자들의 《성화》를 적지 않게 받고있었으며 전국적으로나 도적으로 이 고장 청소년체육학교의 륙상, 레스링, 배구, 탁구종목들이 순위권에 입선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리고 력사유적과 천연기념물들도 한둘이 아니라며 손에 꼽기까지 하였다.

그는 서흥이라는 지명도 고려시기 왕인 원종왕의 태가 묻혀있어 상서롭고 흥한다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하면서 서흥땅이 오늘처럼 흥하게 된것은 결코 그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도가 좋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먼저 군소재지를 감돌아흐르는 서흥강우에 서있는 서흥군민다리를 건너 군인민병원에 들렸다.

걸볼안이라고 병원은 안팎으로 절색이였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환자들의 치료에 정성이 지극하였다. 화상당한 광산의 평범한 로동자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건강을 회복시켜준 아름다운 이야기며 자기 고장에서 나는 약초들로 수십여가지의 약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치료사업에 적극 리용하고있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감동을 자아냈다.

우리는 치료예방과 부원 성명희를 만났다.

《저는 여기 서흥에서 태여났습니다.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어머니는 태여날 자식에게는 꼭 조국의 맑은 공기와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몸을 풀기 전에 귀국하여 저를 서흥에서 낳았답니다.》

일본의 나가사끼원자탄피해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60살이 넘도록 불편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것이 너무 고마와 보답의 마음에서 그는 의료부문 일군이 되였다고 말하였다.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창조적인 로동으로 자기 사는 고장을 보란듯이 꾸리고 빛내여가는 서흥사람들의 밝은 모습은 악기공장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서흥악기공장은 민족악기인 장고생산으로 유명하다.

어느해인가 로씨야 모스크바의 아리랑문화쎈터 회장이 가져간 장고며 재일, 재중동포예술인들이 무대우에서 장단맞춰 흥취를 돋구는 그 장고들이 바로 서흥악기공장제품이였다.

《밀화부리》상표를 단 이 공장의 크고작은 여러가지형의 장고제품들은 제7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중국단동악기전시회에서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군의 악기공장뿐아니라 장공장, 제약공장, 철제일용품공장, 초물제품생산협동조합 등에서는 생산을 활성화하여 군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늘여나가고있었다.

《범안리를 보지 못하고서는 서흥땅을 다 보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안내한 군일군의 말그대로 범안리는 서흥군을 대표할만도 하였다.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앉은 마을, 마을앞에는 바둑판같이 째여진 양어장과 논벌, 옆으로는 서흥강이 감돌아흐르고 발전소가 서있는 모

범안양어장

력사유적 극락전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많은 꿩을 산에 놓아주고있다.

본분을 다해가는 사람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 실장 박헌효를 가리켜 사람들은 실력이 높은 실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필요한 사람, 이 부름속에는 높은 실력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박헌효에 대한 집단의 믿음과 존경이 어려있다.

《그는 흔치 않게 이악한 사람, 비록 말은 적게 하여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애쓰며 한몸바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가…》

박헌효와 20여년을 함께 일해오고있다는 김현희연구사의 말이다.

몇해전 새로운 선박칠감을 개발하여야 할 문제가 나섰을 때였다.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연구과제를 맡아나섰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의의가 있는것이라면 네 분야, 내 분야가 따로 없다. 다 우리 과학자들의 전공분야이고 해결하여야 할 몫이다.》

박헌효

새로운 방법에 의한 실험결과를 놓고

이것이 당시 그의 주장이였다고 한다.

과학자로서의 이렇듯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칠감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것과 함께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동시에 연구해나갔다. 세계적으로 선박칠감으로는 원유에 기초한 유기물질칠감을 원료로 하고있었는데 이러한 생산방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았다.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날과 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에게 새로운 첨가제를 리용하면 물유리의 성질을 변화시켜 선박칠감으로 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이 떠올랐다. 칠감문제해결에서 기본은 첨가제였던것이다.

첨가제를 찾기 위한 나날 그에게는 낮과 밤의 계선이 따로 없었다.

실험의 거듭되는 실패, 그에 따르는 주저와 동요의 목소리…

난관에 부닥칠수록 그는 더 분발하였다. 수많은 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고 연구사업을 이악하게 진행하여 끝내 새로운 첨가제-나노복합분말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새로 개발된 나노복합분말변성물유리에 기초한 무기염선박칠감은 사용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느 한 배수리공장에 선박칠감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도 한몫 하였다.

이렇게 그는 리과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30여년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침체와 답보를 모르는 전진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왔다. 수십년세월의 갈피속에 고심어린 창조적사색과 진지한 탐구의 자욱이 새겨져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질량스펙트르분석에 의한 유기물질의 구조분석체계의 새로운 확립, 원가를 낮추면서도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더 질좋은 스크린잉크희석제개발, 비행공연용 액체색발연제개발, 동력을 쓰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어느 한 공장의 6%아류산수제조장치개발…

이것은 그가 이룩한 연구성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것만 해도 수천건이나 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기에 사람들이 《높은 실력을 지닌 실장, 현실이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이다.

그가 이룩한 연구성과는 보답을 과학자의 마땅한 도리로 여길줄 아는 정열의 열매였고 맹세의 실천이였다.

그러한 실천으로 하여 나라에서는 그를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로 내세워주었다.

언제 한번 자기가 하는 연구사업이 누구에게 알려지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였다. 단지 과학연구사업성과가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되면 그만이라는것이 그가 한생 간직하고 사는 량심의 지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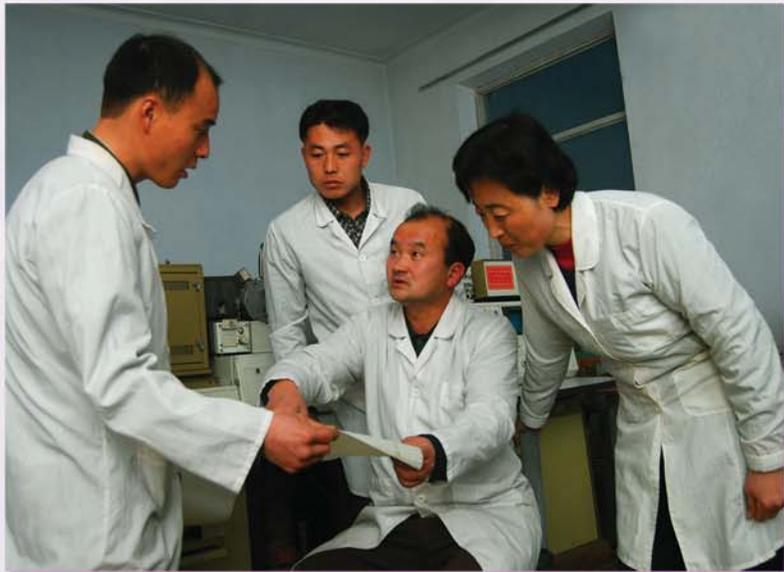
그는 말하였다.

《저는 그저 귀국의 배길을 열어 품에 안아주고 공부시켜주고 내세워준 나라의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과학자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을뿐입니다.》

수십년세월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량심을 물어가며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해가는 박헌효야말로 조국과 인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아들의 론문집필을 도와주고있는 박헌효

습…

한폭의 그림같이 황홀한 범안리의 풍경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 나날이 펼쳐지는 선군풍경들이 눈앞에 안겨왔다.

14년전 7월 범안리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고장을 돌아보시고 그토록 만족하시여 제대군인부부의 가정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이곳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밥을 지어먹게 되면 자신께 편지를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몇달후 제대군인부부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다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오늘 범안발전소에서는 인민들의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게 발전기효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전력생산을 종전보다 1. 5배로 높여 정상운영해나가고있으며 범안양어장에서 자래운 팔뚝같은 물고기들은 농장과 군안의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깃들자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하나, 둘 불이 켜졌다.

가보고싶은 곳, 만나보고싶은 사람들을 찾아 우리는 다음날에도 취재길을 계속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상식

간을 보호하는 운동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과 발끝을 방바닥에 대고 팔을 곧추 세우면서 몸을 뜨게 한다.

이런 자세에서 허리를 아래우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각각 2~3번씩 한다.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팔과 발뒤축만 방바닥에 대고 몸을 뜨게 한다. 그 다음 허리를 아래우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2~3번 한다.

반듯이 누워서 두 무릎을 벌리고 가볍게 세운다. 두손을 배우에 얹고 머리와 발바닥으로 방바닥을 지지하고 허리를 올린 다음 허리를 아래우로, 좌우로 움직이거나 돌린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 도문기관구 기관사 김만복형님 앞

보고싶은 형님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늘 자기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중국에 살고있는 형님들에게 여적 소식을 전하지 못한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만복형님과 같이 도문시에서 살고있는 만춘형님과 룡정시 심계국에서 일하는 장춘형님을 비롯한 형님들과 형수, 조카들도 모두 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형님은 아직도 도문기관구에서 기관사로 일하고있는지.

언제인가 제가 화물을 가득 싣고 조국의 북변 회령시에 간적이 있었는데 두만강건너 중국땅을 바라보니 손에 닿을듯 지척인 곳에 있는 형님들이 저의 기적소리를 듣고 금시라도 달려올것만 같았습니다.

둘째큰아버지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에서 조국으로 나와 전시수송에 참가하여 용감성과 위훈을 떨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과 같이 기관사로 된것도 큰아버지의 뜻을 따랐기때문입니다.

철도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회령에서 기관차조수로 있을 때 회령에 있는 우리 집에 나들이오셨던 둘째큰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기관차에도 올라오셨댔습니다.

형님도 아다싶이 1963년에 우리 가정이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어느덧 50여년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습니다.

《난 7남매의 막내아들로 어릴적부터 부모형제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하지만 혼자의 결심으로 조국에 온것을 언제한번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는 조국인민들과 조금도 차별없이 꼭같은 대우를 받으며 참된 삶을 누려왔습니다.

회령시에서 살고계시는 저의 어머니도 여든살을 가까이하지만 정정한 몸으로 자식들 뒤바라지를 잘하고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영숙누이는 회령탄광기계공장 통계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미숙누이는 강원도 세포에서 살고있는데 요즈음 축산기지건설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여 천지개벽이 되여가고있다고 자주 소식을 전해오군 합니다. 그리고 청진시에서 사는 누이동생 경숙이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우리 아들 혁이는 몇해전 평양인쇄공업대학 추천을 받았지만 조국보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면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초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두차례나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을 편지로 전해올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와 안해는 눈물이 글썽하여 손에서 편지를 놓지 못하였고 친척들과 동네사람들도 모두 함께 모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강성국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저도 강성국가건설장들에서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기관차의 화차들에 가득 싣고 조국땅 방방곡곡을 누벼가고있습니다.

형님들도 조국에 꼭 한번 나와보십시오.

텔레비죤이나 신문, 방송으로 조국소식을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나을것입니다.

평양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형제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게 될 때가 언제나 오겠는지 무척 기다려집니다.

그럼 형님, 상봉의 날을 그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부디 몸건강하십시오.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 60인민반 김광춘

인상기

승리의 전통을 새겨보며

한광순 (가운데)

이번에 나는 조국에 와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조국은 미제와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쳐왔다. 그 긍지를 안고 나도 우리 동포들도 해외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나는 그 승리의 전통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적의 침략도 쳐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지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동포들이 적지 않다. 우리 령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전시물 하나하나도 그저 무심히 스쳐보낼수 없었다.

더우기 기념관의 복도에 게시되여있는 한 시인이 남긴 시 《팔공산이여, 너의 릉선, 너의 고지들에 조국이 추억할 위훈을 남긴 전우들의 령혼이 있기에 순간도 너를 잊지 못하리니 내 다시 돌아오리라》는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

한치의 땅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병사들,

정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미제를 이긴 강한 나라로, 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나라로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온 우리 조국의 력사는 어제, 오늘뿐아니라 래일도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중국 연길시 한광순

평양민속공원에서

하루라도 더 와보고싶던 내 조국이다. 그 사이 또 얼마나 많이 변하였을가 하는 마음을 안고 나는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었다.

내가 조국에 와서 제일 큰 감명을 받은 곳들중의 하나가 평양민속공원이다.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조국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는 민속공원은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었는데 거기에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오늘의 **김일성**, **김정일**조선에 이르는 민족의 모습이 다 어려있는듯싶었다.

나는 력사유적전시구로부터 현대구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서 민족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았고 또 민족의상전시장에서 명절때나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입는 조선치마저고리가 발전되여온 력사에 대하여서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민속박물관도 돌아보면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민속전통에 대하여서와 돌생일, 결혼식, 환갑 등 관혼상제풍습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례의범절이 바르고 서로 돕고 위해주는 풍습이 강한 우리 민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나는 풍성하게 차린 《환갑상》앞에 앉아 사진도 찍었다. 그러느라니 내 나이가 한 20년은 젊어진것 같았고 이렇게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며 나의 친지들과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부러워할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참으로 돌아보면 볼수록 평양민속공원이야말로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유산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 연길시 최선금

만경대고향집 우물가에서

고국방문

《젊음을 되찾은것 같소》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모범지부대표단 -

이번 고국방문란에는 어떤 화면들을 담을것인가. 이를 두고 취재수첩의 갈피를 번지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국에 왔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모범지부대표단 성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누구라없이 《젊음을 되찾은것 같소.》라고 하던 그들의 말이 되새겨진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사는 지부장 김영일, 허태섭, 장정윤, 박옥순 등 대표단성원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모두가 활기에 넘쳐 조국의 많은 곳을 돌아보았다. 만경대고향집과 금수산태양궁전, 주체사상탑, 창전거리, 릉라인민유원지, 옥류관…

지금도 그 로정마다에 새겨진 동포들의 모습이 즐겁게 돌이켜진다. 만경대의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10년은 젊어지는것 같다고 환하게 웃음을 짓던 허태섭, 장정윤동포들, 릉라곱등어관에서 곱등어들의 재주를 관람하며 기쁨에 넘쳐있던 김성춘, 차명자동포들, 그런가하면 서해갑문을 찾았을 때 건축물의 웅장함과 시원한 바다바람에 막혔던 가슴이 활 열린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원복순, 박옥순동포들…

부지부장 김성춘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방문단성원들은 대부분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역에서 살면서 늘 가슴속에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산 우리들이다.

정작 이렇게 와서 친절한 조국인민들을 대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민족적긍지가 더욱 커진다.》

동포들은 가슴속에 차넘치는 희열을 감출수 없어 참관지로 향하는 뻐스안에서도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평양지하철도를 돌아보는 동포들

릉라곱등어관을 찾은 동포들

서해갑문을 찾아서

옥류관에서 평양랭면도 맛보았다.

주체사상탑에서

굳건히 지켜가는 생명선

총련의 역군으로 준비해가는 조선대학교 학생들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종차별철폐와 관련한 국제회의가 진행될 때였다.

회의시작을 앞두고 재일동포대표들이 국제기구성원들과 비정부기구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설선전을 진행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략칭 류학동) 도쿄지부의 박광령동포는 동포학생들이 제작한 민족교육을 소개하는 인쇄물들을 배포하였고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 부장 신창수동포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불이 중지, 거부되고있는 상황을 직관물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들은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총련의 민족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첨예한 정치적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당시 국제기구대표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은 일본당국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동시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민족교육을 꿋꿋이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지지하고 련대성을 강화하려는 의사들을 표명하였다.

돌이켜보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은 수십년세월 걸음걸음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기발전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다.

지금도 동포들은 1948년의 일을 가슴에 새기고있다. 그해 1월 일본정부는 조선인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허용된 학교들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어교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령》을 각지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이 집중되여있는 효고, 오사까, 야마구찌, 도쿄, 이바라기등지에서 군대와 경찰, 중무기와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학교들을 강제로 폐쇄하였다. 당시 동포들은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불의의 습격과 검거책동에 의해 피흘리며 쓰러진 동포들의 원한을 풀어주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련일 격렬한 철야투쟁을 벌리였고 대표들을 파견하여 당국자들과 담판도 하였다.

마침내 일본반동들로부터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명기한 각서에 서명을 받아냈다. 연 112만명의 재일동포들이 떨쳐나 민족교육의 자주적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그 투쟁은 세계해외교포투쟁력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권리옹호투쟁으로, 4. 24교육투쟁으로 명명되여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그후 재일동포들은 4. 24교육투쟁의 정신을 안고 거듭되는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물리치며 자기의 항로를 변함없이 걸어왔다.

재일동포들의 이 투쟁은 주체44(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됨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총련은 지난 60년간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민족교육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발전시키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일관하게 내세웠다. 그리고 민족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자체의 교원양성기지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심화시켰다.

총련은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해마다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조국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동포들의 애국애족적인 열성을 발동하여 학교건설과 학교운영의 토대를 닦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하여 조선대학교의 새 교사가 일떠서게 되였고 일본 각지에 조선학교들이 보다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오늘도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물리치며 민족교육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폭행, 폭언을 하며 등교길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우익반동분자들이 일본경찰당국의 비호밑에 조선학교들앞에 몰려가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벌리는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게 하고있다. 그 열띤 흐름속에 재일동포학생들은 일본 전국고등학교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 경연들에서 우승을 하여 민족의 기개를 떨치고있으며 수많은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동포사회의 역군들로 자라나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새로 준공한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조국에서 보내온 선물을 받아안고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학생들

우리말 공부시간 (유치반)

재미나는 인형극 (유치반)

학생들의 바줄당기기경기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8)

- 함흥지구 -

이번호에서는 조선동해의 함흥만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함흥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함흥은 함경남도의 소재지일뿐아니라 조선의 중요공업도시이며 항구도시입니다.

평양에서 함흥까지는 300여km입니다. 시에는 대규모의 화학, 기계, 방직공장들이 있으며 흥남항이 있습니다.

또한 시에는 많은 력사유적들과 천연기념물들이 보존되여있습니다.

먼저 함흥시 남서부에 있는 동흥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흥산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함경남도혁명사적관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사적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동부의 번영하는 도시 함흥에 있는 산이란 뜻에서 동흥산으로 부르고있습니다. 산의 남서쪽기슭으로는 성천강이, 동쪽기슭으로는 호련천이 흐르고있습니다. 산에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단풍나무, 가래나무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봄철에는 진달래꽃, 두봉화, 복숭아꽃, 배꽃 등이, 여름철에는 무궁화, 장미꽃, 월계꽃, 자귀나무꽃 등이 활짝 피여나 아름다운 동흥산의 자연풍치를 더욱 돋구어줍니다.

함흥시의 도시전경과 무연한 함흥벌이 한눈에 안겨오는 산마루에 오르면 문화휴식터로 잘 꾸려진 동흥산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산에는 자연미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단청으로 장식된 구천각과 함흥선화당이 있습니다.

산의 동쪽기슭에는 함흥시에서 제일 크고 오래자란 나무로서 생김새가 특이하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특별히 보호관리되고있는 300년이상 자란 동흥산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동흥산마루에 있는 구천각은 함흥성의 북장대로 리용한 유적으로서 외적의 침입시에는 전투지휘처로 리용되였던 곳입니다.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높은 축대우에 루정을 올려놓은 구천각은 고려시기인 1108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13년에 다시 고쳐지었습니다.

돌층계를 놓아 오르내리게 한 구천각은 무지개문길을 낸 축대우에 성가퀴를 돌리고 거기에 화살을 쏠수 있는 구멍들을 냈으며 축대의 네면에는 비물이 모여 흘러내릴수 있도록 물홈을 팠습니다.

마전유원지 해수욕장

축대우에는 정면과 측면이 다같이 3간(7m)인 겹처마지붕의 루정을 세웠습니다.

구천각은 오늘 후대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도록 옛 모습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함흥성은 함흥시 동흥산에 있는 고려시기의 성입니다. 고려시기 북관을 개척하고 설치한 9개 성의 하나로서 1108년에 동흥산을 배경으로 쌓은 성입니다.

성안에는 병영, 무기고, 식량창고가 있었으며 성안팎이 한눈에 안겨오는 가장 높은 곳에는 북장대가 있었습니다.

평산성인 함흥성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산지대의 성벽은 외겹으로, 평지대에서는 겹으로 쌓았습니다. 성문은 지형조건과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사방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동문은 패동문, 서문은 풍서문, 남문은 진남문, 북문은 진북문이라 하였고 문마다 다락이 있었습니다.

함흥성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중요한 요새로 되였습니다.

함흥선화당은 조선봉건왕조시기(1392년-1910년) 함경도감영의 기본건물로 쓰이던 력사유적입니다. 감영은 여러채의 건물들이 큰 건축군을 이루고있었으나 지금은 선화당과 부속건물인 징청각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있는 선화당은 1416년에 처음 세우고 1764년에 다시 지은것입니다.

함흥선화당은 두공을 짠 솜씨와 화반의 무늬가 특별히 훌륭하여 우리 나라 옛 건축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 관청건물의 건축양식과 그 규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유산입니다.

함흥시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25㎞떨어진 곳에 마전유원지가 있습니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하얀 모래밭에 훌륭히 꾸려진 휴양관광지입니다.

옛날에 삼을 많이 심었다 하여 마전이라고 부른 여기에는 무성한 숲과 해수욕장, 야영소, 휴양소들이 있습니다.

마전에서 특징적인것은 해수욕장인데 물이 깊지 않으면서도 맑고 깨끗하며 백사장의 모래가 하얀것입니다. 모래밭은 50~100m의 너비로 펼쳐져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은 휴양객들로 초만원을 이룹니다.

고원군 락천리에는 력사가 오랜 사찰인 량천사가 있습니다. 753년에 건설되였는데 현재 대웅전과 만세루, 극락전만이 남아있습니다.

대웅전은 1636년에 고쳐세웠으며 만세루는 1729년에 증수하였습니다.

량천사에는 당대의 시대상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진귀한 회화작품들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력사유물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습니다. 그 규모와 력사에 있어서 조선에서 손꼽히는 사찰의 하나입니다.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리에 있는 안불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찰입니다.

중심건물인 극락보전과 민적당이 있는 안불사는 1393년에 처음으로 세우고 1843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건물은 정면 가운데간을 좌우 측간보다 약간 넓게 하면서 문살의 대조적효과로 중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안불사도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적으로서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함흥지구에는 관광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민족의상전시장을 찾아서

따뜻한 봄빛이 무르익는 어느 날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과 함께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민족의상전시장을 찾았다.

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사 박사 리순희가 우리를 안내하였다.

몇해전 중국의 연길에 몇달동안 가있었던것으로 해서인지 동포들은 저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반가와하였다.

우리가 그를 따라 제일 먼저 들린 곳은 고구려의상전시장이였다. 고구려벽화에서나 보았던 옷차림들이 그대로 펼쳐진 전시장은 정말 황홀할 지경이였다.

그러는 우리를 보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 옷들을 보십시오. 조선옷은 우리 나라의 온화한 자연기후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 밝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생활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변화발전하여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전시장을 돌아보았다. 돌아볼수록 고구려시기옷은 다양하였다. 따로 떨어진 웃옷과 아래옷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겉에 입는 겉옷과 안에 입는 속옷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남자옷과 녀자옷,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에 입는 홑옷과 봄가을에 입는 겹옷, 겨울에 입는 솜옷 그리고 평상복, 로동복, 군복, 례복…

리순희는 말하였다.

《이것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로 구성되여있는 남자옷입니다. 남자옷을 아래옷과 웃옷, 겉옷으로 구성하는 풍습은 고조선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말까지 존속되여왔는데 우리 나라 봉건시대옷가운데서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보기 좋은 남자옷은 고구려시기의 남자옷이였습니다. 녀자저고리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남자의것과 같으나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인형들에 입혀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옷들은 색갈과 무늬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아름다왔을뿐아니라 옷감 또한 독특하였다. 주로 베, 모시, 명주 등으로 된 옷감은 얼마나 짜임새가 곧고 아름다운지 지금의 옷감에도 짝지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리순희를 따라 이번에는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의상전시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고려시기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전해지는 옷들이 전시되여있는 그곳은 또 그대로 특색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전해오는 조선옷의 기본형태를 보게 됩니다.》라며 그는 전반적으로 조선옷은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로 가면서 웃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진것이 특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래옷을 바지라고 한것도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라는것, 남자옷은 시대에 따라 더우기 계급신분에 따라 각이하였고 그 종류와 형태도 여러가지였다는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남자옷뿐아니라 녀자조선옷도 치마, 바지, 저고리, 겉옷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녀자저고리들을 하나하나 보느라니 독특한것은 회장을 놓는 풍습이였다. 저고리의 소매끝, 깃, 고름, 겨드랑이 등 빨리 어지러워지는 부분을 자주 다른 천으로 갈아대여 옷차림을 깨끗이 하려는데서부터 시작된것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는 치장의 중요수단으로 되였다고 한다.

우리는 혼례식때 새색시가 저고리를 세벌씩 껴입던 풍습이며 례식때에 치마안에 속치마를 입고 그속에 무지기(빳빳한 사로 만든 속치마)를 입는 풍습, 혼례식때가 아니라도 량반집부녀자들이 무지기를 입었다는 세도가문의 풍습, 치마우에 행주치마(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을 하는 풍습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민족의상전시장을 찾은 동포들

조선옷에 대한 해설을 듣고 우리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높은 혼례풍습관에 들렸을 때였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신부들이 옛날옷을 입고 《큰상》앞에서 교배하고 술잔을 받고있었는데 《큰상》앞에서 사진을 찍은 한 신랑신부가 가마와 말을 타고 마당을 한바퀴 돌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신부를 데려간 신랑이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한다는것이였는데 중구역에서 살고있다는 신랑 김억세가 아주 걸작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와!》 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동포들도 우리도 허리가 굽어들게 웃으며 마당에 내려섰다.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고구려시기옷을 갈아입은 처녀, 총각들이 검을 쥐고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시기별에 따르는 풍속을 찾느라고 책을 펼쳐가며 야단법석이였다.

그들을 바라보며 동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조국이 제일이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넋과 기상을 떨쳐가고있으니 앞으로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강해질가. …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뒤에 두고 발해궁전에 있는 조선민속박물관에로의 참관길을 이어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민족의 향기

구수한 강냉이국수맛을 보시려거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잡지 《금수강산》지면에서 처음 만나게 되여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속에는 지난 기간 저와 낯을 익히지는 못하였어도 우리 평양강냉이전문식당에서 봉사하는 강냉이음식에 맛들인분들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10여가지의 강냉이음식가운데서 제일 인기를 모으는것은 뭐니뭐니해도 강냉이국수입니다.

강냉이음식에 넘치는 민족의 향기가 지경을 넘고넘어 여러분모두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생각, 두고온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차넘치게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식당에 남긴 한 재중동포의 글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늘 맛보아도 하나같은 우리 국수!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언제나 같기를 바랍니다.》

그 동포뿐이 아닙니다.

해외동포들가운데는 우리 식당의 강냉이국수를 처음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며 곱배기를 청하고도 성차지 않아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전기간 매일 한끼씩은 꼭꼭 우리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강냉이국수의 맛좋은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보던분들의 정다운 모습들을 떠올리며 오늘 몇마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냉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알곡작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17세기 후반기부터 재배하여온 강냉이는 밭곡식중에서 소출이 높고 리용범위가 넓습니다. 낟알로는 강냉이쌀, 농마, 당분, 과자, 국수, 간장, 맛내기 등 식료품을 만들며 강냉이눈으로는 기름을 짤수 있습니다.

강냉이국수맛을 살리는데서 기본은 국수의 질을 높이는것입니다.

국수의 질은 강냉이가공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국수가공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였으며 초미분쇄설비를 갖추어놓고 질좋은 강냉이변성국수를 눌렀습니다.

국수는 누를 때 강냉이가루에 적당한 소금과 물만을 넣으므로 인체에 해로운 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젖은국수는 초극동하여 식당에서 봉사에 리용하며 포장한 마른국수는 수많은 가정부인들의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그럼 구수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강냉이국수 만드는 방법을 봅시다.

마른국수 1kg은 어른 5명분입니다.

먼저 국수를 찬물에 30분정도 불굽니다. 불군 국수를 오리오리 엉키지 않게 하고 끓는 물에 2~3분간 삶습니다.

강냉이국수는 방안온도와 같은 물에서 씻어야 제맛이 납니다.

강냉이국수는 오이랭국과 양배추김치물에 말면 강냉이의 고유한 향기가 은근하게 풍겨오게 됩니다.

강냉이국수에는 뭐니뭐니해도 꾸미를 잘 올려놓아야 합니다. 양배추뿐아니라 고구마순과 미역줄기, 풋고추, 버섯같은것을 기름에 볶아 접시에 색을 맞추어 돌려담은 후 삶은 닭알 반알을 놓아 강냉이국수와 함께 상에 냅니다.

우리 식당에서 국수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비결에 대하여 묻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음식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였을뿐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봄,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따끈한 돼지고기국물과 닭고기삶은 물에 간을 하여 온면도 봉사하고있습니다.

또한 뜨끈한 무우시래기된장국에 강냉이국수를 먹는 맛 또한 별맛이여서 단골손님들은 우리 식당이름만 들어도 구수한 토장국과 강냉이의 고유한 향기가 풍겨오는것 같아 군침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강냉이국수뿐아니라 빵, 지짐, 만두 등 10여가지의 강냉이음식도 함께 봉사하고있는 우리 식당은 그 어느때건 동포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것입니다.

평양강냉이전문식당 렴설미

력사인물

사실주의화가 김두량

김두량(1696년-1763년)은 18세기 전반기에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그림을 잘 그린 화가이다. 자는 도경, 호는 남리 또는 예천이라고 불렀다.

대대로 도화서에서 근무한 화원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며 남달리 뛰여난 그림솜씨를 보여주었다. 그역시 선친들처럼 도화서 화원이 되였으며 여기서 별재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인물화와 함께 풍경화, 동물화 등을 많이 그렸다. 실학사상이 퍼지던 력사적시기에 창작활동을 진행한 그는 조국의 아름다움을 민족적정서에 담아 잘 그렸을뿐아니라 당시 농촌생활에서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찾아내여 형상함으로써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속화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소몰이군》(목우도), 《4계절》, 《들판에서의 사냥》, 《달밤의 계곡》, 《개》 등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김두량의 그림 《소몰이군》을 보시고 소몰이군이 곤해서 깊이 잠든것을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렸다고 하시였다.

그림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의 한낮 쉴참에 배불리 먹인 부림소를 버드나무에 매놓고 서늘한 그늘밑에 누워 깊이 잠든 소몰이군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농민들의 고된 로동생활과 함께 근면하고 소박한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에 따르는 농촌전경을 그린 《4계절》에서는 량반지주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하층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량반통치배들의 착취적현상을 조소하고 농민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당시 농촌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낸 그의 사실주의적인 화풍은 그 이후시기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화법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　*

상 식

고구려시기의 쇠뇌(기계활)

고구려시기의 쇠뇌는 B. C. 1~A. D. 1세기의 유물이다.

쇠뇌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활이다. 쇠뇌는 활과 몸통의 두 부분으로 되여있다. 활은 화살 또는 다른 형태의 탄알에 발사력을 주며 몸통은 탄알을 재우고 그것에 발사방향을 잡아주는 사명을 지닌다. 몸통의 등에는 여러개의 탄알을 재우는 탄창이 달리고 쏠 때 주어진 방향으로 탄알을 운동시켜주는 안내홈이 패워져있으며 몸통의 뒤쪽안에는 활줄을 걸어 당겼다 놔주는 발사기계장치가 들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에 단발식쇠뇌들을 썼다.

자강도 전천군에서는 1개의 쇠뇌가 발굴되였고 평양시 정백동 1호무덤과 8호무덤 및 37호무덤에서는 각각 2개씩의 쇠뇌가 발굴되였다.

그 구조와 동작원리 및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끈 이 쇠뇌들에 오늘날의 무기에서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어 그 우수성이 널리 시위되였다.

하기에 다른 나라의 무기전문가들도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000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　*

신라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신라봉건국가는 1세기 초중엽부터 10세기초까지 고구려, 백제 및 발해와 함께 존재한 우리 나라 중세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7세기 중엽까지의 신라를 전기신라라고 하며 그후의 신라를 후기신라라고 한다.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동족의 나라인 고구려의 직접적인 군사정치적영향밑에 놓여있은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와 통치기구의 기본들, 계층적인 봉건관료질서를 많이 본받았다.

신라의 봉건지배층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국 초시기부터 중앙의 통치기구를 꾸리는데 많은 관심을 두었다.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6세기초 이전시기 신라의 국왕은 화백 또는 사령지회의라고 하는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에 의거하여 국가전반에 대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의 우두머리는 상대등이라는 최고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급의 귀족들이 모이는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에서는 국왕의 추대와 페위, 전쟁의 개시와 중지 등 국가적규모의 중대사들이 토의결정되였다.

6세기이후 신라봉건국가의 통치기구는 전반적으로 더욱 정비되고 나라의 중앙집권체제는 한층 강화되였다. 이전시기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던 신라의 국왕은 이 시기에 와서 그 우두머리인 상대등을 국가관료체계에 끌어들임으로써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를 국왕정치에 철저히 복무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또한 신라의 봉건지배층은 저들의 계급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병부, 사정부, 위화부, 조부, 승부, 례부, 령객부, 내성, 창부, 집사부, 리방부 등 각종 중앙통치기구와 관청들을 설치하고 확대해나갔다.

후기신라시기에 들어와서도 신라봉건국가는 봉건적중앙집권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앙통치기구들을 내왔다.

신라봉건국가는 국왕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보좌할수 있는 중앙통치제도의 수립과 함께 나라의 전반적지역에 대한 중앙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치제도도 정연하게 세워나갔다.

결과 왕기(수도)와 기외(지방) 즉 6부와 주, 군, 현, 촌과 같은 정연한 지방통치체계가 갖추어졌으며 후기신라시기에는 9주5소경제도가 세워졌다. 여기에는 군주(도독, 총관), 태수, 현령, 촌주 등의 지방관들이 배치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지배와 통제를 맡아하였다. 또한 정치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지방의 중심지인 소경을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력을 강화하였다.

신라봉건국가는 당시의 력사적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사제도의 정비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주변소국들을 병합하여 자기의 령역안에 끌어들인 신라는 확대되는 령역에 대한 수비와 전쟁수행에 요구되는 방대한 인적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체 주민에 대한 봉건적의무병역제도를 실시하였다.

신라에는 상비적군사무력으로서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었다. 중앙군은 수도를 포함하여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에 주둔하면서 수도보위를 목적으로 한 국왕의 직속부대였다. 지방군은 지방에 대한 통치와 변방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여 주, 군, 현, 촌 등에 배속되였다. 각급 지방관이 파견된 여러 고을들뿐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진들에도 지방군이 배치되였다.

7세기 60년대에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의 나라들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의 많은 군사조직들은 봉건지배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계급적지배의 무기로, 인민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적극 리용되였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신라의 봉건지배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률령과 같은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법전의 제정과 사정부, 좌, 우리방부와 같은 사법, 검찰 및 립법기구들도 설치하였다.

후기신라시기에 와서도 신라봉건국가는 전기신라의 통치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는 고구려의 발전된 정치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그 말기에 이르러 왕권을 둘러싼 지배계급내부의 권력싸움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935년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심칭룡

사 화

박연과 그의 스승

박연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몹시 즐기였다.

그는 앉아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면 언제나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손가락으로 다독이면서 장단을 쳤고 입으로는 휘파람을 불어 음률을 익히였다.

박연이 자라 향교에서 공부할 때 그 이웃마을에 저대를 잘 부는 사람이 있었다. 박연은 글공부를 하는 여가에 그에게서 저대를 배웠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 배우고 돌아와서는 밤을 지새우며 련습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대를 잘 부는 사람이 박연에게 더는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하였다. 뜻밖의 말에 박연은 실망하였다.

《저에게서 무슨 노여움을 받으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네가 나에게 무슨 노여움을 끼쳤겠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왜 오지 말라 하십니까? 저에게서 저대에 능통할 재질이 보이지 않아 그러십니까? 저는 저대를 하루도 배우지 않고서는 살지 못할것 같습니다.》

박연은 진정으로 자기를 배척하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그가 껄껄 웃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은 자네가 인젠 나에게서 더 배울것이 없어 그러네. 자네는 벌써 한달어간에 나에게서 배울건 다 배웠네. 그리구 요즈음에 와서는 도리여 자네가 나보다 저대를 더 잘 부니 내가 이제 무엇을 가르치겠나.》

《예?》

박연은 더 간청을 하지 못하였다.

박연은 이처럼 빨리 음악을 익히여 손꼽히는 저대명수로 되였으며 그 소문은 대궐에까지 전해지게 되였다.

대궐에서는 박연을 불러 장악원의 악사를 시켜 시험을 치게 하였다.

박연의 저대연주를 듣고난 장악원의 악사는 머리를 저었다.

《이 사람은 음률이 속되고 절주가 맞지 않는데다 옛 습관에 이미 굳어졌으니 전망이 없습니다.》

박연은 가슴이 아팠다. 궁궐에 떨어지지 못한 아쉬움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아직 음악을 다 모르고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박연은 그 악사를 찾아가 훌륭한 스승을 뵙고 그냥 돌아가기 아쉬우니 며칠간만이라도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악사는 며칠간만이라니 크게 부담되지 않을것이라 여겼던지 쾌히 승낙하고 그날부터 바른 음률과 절주에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박연은 악사가 배워주는대로 밤을 밝히면서 모조리 익히였다.

약속대로 며칠이 지나자 악사는 박연에게 《자네에겐 가르칠 재미가 있구만.》하면서 더 배울 욕망이 있으면 기꺼이 방조해주겠다고 하였다.

악사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박연에게 음악을 배워주었다. 박연의 음악적재능은 나날이 꽃펴갔다.

어느날 박연의 연주를 듣고있던 악사는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자네는 과시 음악의 명인이로다. 이제는 내가 자네를 더 가르칠수 없겠네. 나의 재능이 자네의 그 음악적재주에 미치지 못하겠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음악통달에 그처럼 빠를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악사에게 박연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명인이겠나이까? 그저 음악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것 같지 않은 못된 성미때문인가봅니다.》

이렇게 하여 또다시 자기 스승보다 뛰여났다는 소문이 돌아 박연은 궁궐에 남게 되였으며 음악을 일생 전업으로 삼게 되였던것이다.

* * *

유모아

따라배우다

《당신네 집 개는 왜 길을 걸을 때 이쪽저쪽으로 비틀거리는가요?》

《우리 남편이 술집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더니 그렇게 습관이 되였지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날에 즈음하여

5월 9일은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게 되는 조선인민은 조로친선의 해인 올해에 친선적인 로씨야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이전 쏘련군대와 인민이 파쑈도이췰란드를 타승하고 이룩한 승리는 세계력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급속히 재생강화되여 복수주의적야망을 품고 세계의 재분할을 요구하던 파쑈도이췰란드는 1941년 6월 22일 새벽 쏘련-도이췰란드불가침조약을 위반하고 방대한 무력과 전투기술기재를 동원하여 불의에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의 강도적침략으로 빚어진 전쟁은 쏘베트정권과 쏘련인민이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이였다.

히틀러군대는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전련맹공산당(볼쉐비크)은 나라의 모든것을 하나의 전투적력량으로 개편하고 전략적예비를 조성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에로 조직동원하였다. 국방위원회가 창설되여 나라의 모든 권력을 집중하였으며 쓰딸린(1879년-1953년)이 그 위원장으로,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였다.

쏘련군대와 인민은 《모든것을 전선을 위하여, 모든것을 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전선과 후방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보위에 떨쳐나섰다.

쏘련-도이췰란드전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전선으로 되였으며 쏘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중하를 걸머지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은 900일동안 히틀러군대의 공격에 대항하여 끝끝내 도시를 지켜냈고 쓰몰렌쓰크, 끼예브, 오데싸, 쎄바쓰또뽈, 모스크바에서도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파쑈도이췰란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45년 5월 9일 위대한 조국전쟁은 쏘련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쏘련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 조국과 제도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설 때 그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는 력사의 반동들에 의한 침략과 전쟁위험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과 국가테로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제를 비롯한 침략세력들의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힘을 키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전통을 계승하여 강력한 국가건설과 나라의 안전, 민족적리익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전략무기를 비롯한 무장장비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애국주의교양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며 사회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노력을 평가하고있다.

조선과 로씨야는 가까운 린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오늘 조로관계는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다.

조로친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쏘련군인들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하여 겨레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지난 3월과 4월사이에만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광란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번에 진행된 합동군사연습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야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보다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연습에는 미제침략군의 륙, 해, 공군작전집단들과 남조선괴뢰군무력이 참가하였는데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합세하였다.

여기에서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전쟁연습이 조선반도 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련합군》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공화국의 수뇌부《제거》, 《평양점령》을 목표로 감행된것이다.

이번 전쟁연습의 내용과 여기에 참가한 무장장비와 병력의 구성상태는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말해준다.

우선 연습이 미군과 남조선괴뢰들, 추종국가들이 합세하여 지상, 공중, 해상타격과 특수작전을 포함한 야외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것이다.

또한 수심이 얕은 조선서해 해상에서 전투행동을 할수 있는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가 직승기와 수직리착륙무인정찰기, 21기의 미싸일을 탑재하고 타격훈련을 진행하였으며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을 제거하고 《북지역에서 특별민사작전》을 벌린다는 미국남조선련합사단이 이번 전쟁연습에서 주되는 역할을 한것이다.

이러한것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철두철미 침략적이고 도발적이며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북침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북남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겨레 누구나가 통일을 갈망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분렬의 비극이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기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민족의 통일기운이 높아갈 때마다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책동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의 침략책동과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괴뢰들의 분별없는 망동은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여지없이 파괴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릴데 대하여 그리고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공화국적대시책동, 전쟁책동은 민족의 안전도 지킬수 없게 하고 북남관계개선도 이룩할수 없게 하고있다.

북남관계는 결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과감한 투쟁을 벌려야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연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유선화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죄악

오늘 일본에서는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극우익보수세력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러나 력사적사실들은 일제의 만행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천마군 서고리 뽕골에서 발굴된 유골, 유물들이 그것을 반증하고있다.

당시 그곳에서 진행된 광석탐사과정에 길이 78m, 높이 2m, 너비 1. 8m의 페갱이 발견되였다. 바로 그안에서 관통상을 입은 두개골들과 총알이 박혀있는 대퇴골들, 탄피들, 불발탄들, 고무신들과 로동화들, 수십명분의 수저, 미쯔이회사상표가 있는 혁띠고리들, 징용자표식이 있는 나무패쪽들, 단추 등이 나왔다. 유골은 338구, 유물이 300여점에 달한다.

현지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미쯔이를 비롯한 자본가들은 천마지구(당시 의주군 고령삭면)에서 40여개의 금, 은광산들을 개발하고 조선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여 수많은 자원을 략탈해갔다고 한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로 되였을 때에는 이 지역의 여러 갱입구들을 폭파시켜 매몰했다고 한다.

력사적사실은 일제가 갱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던 징용자, 광부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갱안에 몰아넣고 총으로 쏘아죽인 다음 갱입구를 매몰시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의 죄악을 고발하는 일부 증거물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군사적교두보로 간주한 일제는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력대 조선《총독》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족말살을 명령하였다.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만 보아도 그자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일제의 만행은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가 중국 동만에서 유격근거지들을 초토화할 때 실시한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는 정책)은 조선민족멸살정책의 대표적산물이다.

일제가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기화로 감행한 조선인집단학살만행역시 피비린내나는 살륙범죄였다. 당시 일제는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로 조선사람을 가려내고는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랐으며 눈알을 빼고 코를 베여낸 다음 시체를 시내로 끌고다니였다.

조선인학살에 참가하였던 한 일본인경찰은 그에 대해 이렇게 실토하였다.

《참살정형은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수 없다. …어린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랐으며 그 다음 그 부모들도 찔러죽이였다. 살아남은 조선사람의 팔을 톱으로 켜는자도 있었다. …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에 조선의 모든 인적자원을 강제동원하려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어가기도 하였다.

40여년에 이르는 일제의 군사적강점기간 이렇게 살해된 조선사람들의 수가 100여만명에 달한다. 그리고 84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 랍치되여 고역장들과 전쟁마당들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거나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과거 일제의 조선인살륙범죄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 없다.

본사기자 조선일

일제가 평안북도 천마군 서고리 뽕골에서 학살한 인민들의 유해

페갱에서 발굴된 유물들

탄알이 관통된 머리뼈

광주대학살의 주범은 미국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일들도 잊혀진다. 그러나 35년전 5월에 감행되였던 광주대학살만행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있다.

옹근 하나의 도시가 피바다에 잠기고 단 며칠사이에 수천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된 대학살만행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동방의 근대력사에는 압제와 예속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광주인민봉기와 같이 인민들이 미국의 군사적강점밑에서 대비도 할수 없는 정규무력과 싸워 도시를 해방하고 10일동안이나 고수한 그런 영웅적투쟁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

당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유신》독재의 종말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한 민주화의 싹을 파쑈폭거로 짓밟는 군사파쑈분자들의 란동을 반대하여 《유신체제 철폐하라!》, 《전두환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항쟁의 거리를 누벼나갔다.

항쟁용사들은 군사파쑈분자들이 달려들어 찌르고 쏘고 불태울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동료들의 시체를 메고 원쑤의 아성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들은 《경찰서》와 무기고, 화약창고들을 습격하고 치렬한 결사전을 벌려 《계엄군》을 시내에서 몰아냈으며 《시청》과 《도청》 등 파쑈통치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바빠난것은 미국이였다. 미국은 광주인민봉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정책이 뒤흔들리는데 겁을 먹고 봉기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미국은 의로운 봉기자들을 《폭도》로 모독하면서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가 적합치 않다.》고 공언하며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할데 대한 봉기진압작전계획을 세웠다. 이

에 따라 미국방성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 윅캄에게 광주살륙전을 긴급지령하였다. 윅캄은 자기 휘하에 있는 5개의 공수특전려단과 3개의 보병사단, 기갑부대, 항공부대 등 7만여명의 대병력을 봉기진압에 투입하고 그 지휘권을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게 넘겨주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항공모함《코랄씨》호와 《미드웨이》호를 비롯한 군함들을 남조선근해에 파견하여 군부독재자를 부추기고 봉기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고무된 전두환파쑈도당은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지껄이면서 환각제를 먹인 대병력과 땅크, 대포, 비행기, 미싸일까지 봉기진압에 내몰았다. 파쑈교형리들은 남녀로소를 닥치는대로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다 못해 땅크로 깔아죽이고 처녀와 부녀자들의 젖가슴을 칼로 도려내여 죽였는가 하면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내동댕이쳐 죽였다.

피에 주린 살인마들의 이 광란속에서 광주에서는 5 0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1만 4 0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항쟁의 도시는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 피의 목욕탕으로 되였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동족을 이처럼 무참히 학살한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이 죄악은 악명높은 살인악마, 인간백정의 무리인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들의 지령과 조종에 따라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서 광주대학살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피의 증견자인 남조선의 무등산, 광주천이 오늘도 미국과 파쑈살인악당에 대한 풀길없는 원한으로 몸부림치고있으며 원한품고 간 항쟁용사들의 넋이 치를 떨고있다.

현실은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광주의 이 피맺힌 원한을 절대로 풀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피로 새겨주고있다.

반미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광주인민봉기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군부통치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광주인민봉기자들

광주인민봉기자들을 야수적으로 끌고가는 남조선괴뢰군

본사기자

《배 놀 이》

김석신(1758년-?, 자; 군익, 호; 초원)은 긍재 김득신의 동생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룩만리》를 비롯한 훌륭한 그림을 많이 그린 큰아버지 김응환에게서 그림그리기를 배웠으며 김응환의 제자인 김홍도와도 친밀하게 사귀면서 사실주의적인 창작태도를 굳혀나갔다. 그는 도화서 화원이였으며 부사과벼슬을 지냈다.

그림 《배놀이》는 화창한 봄날의 하루, 량반들이 배를 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것이다.

량반들과 악공들이 탄 두척의 배가 잔잔한 물결을 헤가르며 강심으로 서서히 거슬러오르고있으며 물이 올라 푸르게 단장한 나무들과 마을을 울긋불긋 물들인 살구꽃, 바위산의 틈사구니에 뿌리를 박고 피여난 진달래꽃들은 봄빛이 짙어가는 강변의 자연풍경을 보여주고있다. 바위산을 힘있고 활달한 필치로 형상하고 가는 선으로 유유히 움직이는 배와 사람들을 그렸으며 나무의 푸른 빛과 꽃의 붉은 빛을 조화시켜 봄날의 밝은 분위기를 돋구었다.

김석신의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은 그리 많지 못하지만 이 그림만을 보아도 그의 뛰여나고 개성적인 그림솜씨를 알수 있다.

신양의 봄

높고 낮은 산들을 휘감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소나무, 이깔나무, 잣나무사이로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든다.

파릇파릇 돋아난 풀을 뜯어먹으며 가는 염소, 소들과 함께 방목길을 걷는 방목공처녀의 얼굴에 함뿍 웃음이 어리였고 처녀의 마음인듯 군데군데 피여난 아름다운 꽃들도 더욱 향기를 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582134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